

April 7, 2019 사순절기간입니다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양	예수 우리 왕이여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151장(통138, 만왕의 와 내주께서)	
Prayer 기 도	최 활 집사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고린도후서6:1-13	
Choir 성가대찬양	“ 갈보리산 위에 ”	
Sermon 말 씬	김원기 목사	
“ 마음을 넓히라 ”		
● Prayer 기 도	다같이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00
☐ 성가대연습 / 카운실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삼하23:1-7 ☐ 제목: 다윗의 마지막 말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 구역장 : 라계용 권사	인도 : 라태한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정식장로	인도 : 조홍진장로
☐ 무 - 구역장 : 김봉재 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최은자 권사	인도 : 최 활 집사
☐ 실버 - 구역장 : 정선옥 사모	인도 : 정윤두 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1. 2019년 표어 또 “예수님처럼-예수님처럼”(요15:10)	
2. 이달에 읽을 성경은 로마서 입니다.	
3. 2019년 4월 행사계획	
4/7 사순절기간입니다. 정기카운실	
4/14 종려주일(고난주간시작과 특별새벽기도회)	
4/21 부활주일(성찬식)	
4/28 생일축하. 교역자들의	
4. 환우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진순식권사님, 나혜경자매님, 강주리권사님)	
5. 사순절 기간입니다.(새벽기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6. 성속한오후 시즌4 수료식이 있습니다.(수료증과 기념품)	
7. 교우동정	
- 김창님 권사(LA 작은 딸집)	
- 한경완 권사(팜데일 큰 딸집)	
8. 예배에 참석하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주일2부 대표기도순서	
4/14 조홍진장로 4/21 김용훈집사 4/28 원동길장로 5/5 라태한장로	
# 토요일 새벽기도순서	
4/13 성승특권사 4/20 김봉재권사 4/27 장정님권사 5/4 최은자권사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 2부- 조홍진 장로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 2부- 예배위원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교육목사 :	☐ 전 도 사 : 황창원
☐ 사무장로 : 김경식 라태한 성기현 조홍진	☐ 협동장로 : 원동길
☐ 음향간사 : 장정관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선교헌금 : \$
주일헌금 : \$	
감사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원동길 장로님의 신앙간증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다. 나의 부친은 장로이셨고 모친은 권사이셨다. 나는 여지껏 별고생없이 살아왔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모르고 내부모와 내가 능력이있고 현명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왔다.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당시 인기있었던 무역회사에 입사해서 부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순탄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남보다도 더강했던게 사실이다. 나는 결혼하여 분기한 뒤 부터는 교회를 아주 떠났고, 술과 담배를 즐겼고 이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좋아했다. 76년 이 땅에 이민오게되자 우리 부부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몇군데 교회를 나가보았지만 지루하기만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주 찾아와서 나를 괴롭혔다. 나는 늘 좋아하는 술로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다. 물론 잊는다는 것은 그때 잠시뿐이었다.

어느 주일예배때의 일이다. 교회건축헌금 부족분을 위해 즉석에서 헌금집행을 하게되었다. 우리는 액수를 정하여 제출하고 몇 번에 나누어 내기로 했다. 첫 번째 건축헌금만 내고 중단했다. 이런식의 신앙생활이 두어달 계속됐다. 몇주 후부터 우리 두팔과 처가 일주일 간격으로 남의 차를 받아 박살이 났다.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 그때야 우리부부는 화개하는 마음이 생겼다.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벌을 받는 것 같았다. 무서웠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운 교회를 우리교회로 정하고 목사님의 심방을 받았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다.

몇주일이 지나서 우리교회에서 최익목사님의 부흥회가 있었다. 뜻밖에도 목사님의 말씀은 나를 사로잡았다. 마지막지회에서 강사목사님은 강경하게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돈이요, 이것을 안내면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강제로 징수하실수도 있다는 말씀이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이 일은 우리 가정에서 자동차 사고들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던가? 전 같았으면 목사님이 또 돈얘기 하는 구나 하고 은혜는 고사하고, 그냥 나왔을 텐데 이날은 달랐다. 설교가 끝나고 강사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진심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손을 들고 일어서라고 할 때, 나는 손을 들고 일어났다.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강사님이 앞으로 온전한 십일조를 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일어서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나는 일어났다. 다시 강사님은 손을 가슴에 얹으라고 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염두에도 없이 내 멋대로 살아온 나날들 내 잘난 멋에 살아온 나날들이 아니었던가? 어느새 내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전 같으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체면, 특히 내 옆의 차를 의식했었지만 이날은 참으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다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왔고 그분의 도움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만 깨달았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않고는 한순간도 지탱할수 없다는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다.

집회가 끝나고 성도교제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 왔다. 집에와서 나는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성경말씀을 찾아보고 싶었다. 다음주에 계속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 복미주 개혁 교회(CRC)
사랑의동산교회
Dong San of Love C.R.C.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